

#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총력”

###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 도정 최우선 과제 강조 농정 패러다임 전환·관광·경제 활성화 등 주력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에 당선된 김영록 당선인은 향후 도정의 최우선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밝혔다.

압도적 득표율로 대세론은 입증한 김 당선인은 “전남도의 당면현안인 인구 유출을 막고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에너지벨리를 차질없이 조성해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1,000개를 유치해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전남에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도 전남을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로 조성해 돈이 되는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당선인은 “전남 농업은 그동안 생산에만 그쳐 가격변동에 취약하고 부가가치가 떨어져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스마트 팜 과학영농 등 저비용 고소득 구조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 구축사업을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챙기는 것은 물론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지역의 취약한 복지부문에 대한 정책 확대도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따뜻한 전남, 공동체 전남을 위해 어르신 대책, 장애인 대책 등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아이 기르기 편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체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역사와 전통, 맛과 멋, 지리산 영산강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과 진주를 곁여놓은 것 같은 다도해 등 우리 전남은 문화관광의 최적지”라며 “전남관광공사를 만들어 전남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관광뿐만 아니라 전남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회기반 시설과 SOC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남해안 철도의 고속전철화, 익산-여수 고속화철도를 조기에 건설하고, 고속도로, 공항, 항만, 연도연륙교 등 기간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전남의 인재들이 호남의 정신을 잇고,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10만 인재 키우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자는 누구?

### 지방·중앙 다양한 행정경험 갖춘 정통관료 출신 현 정부 초대 농식품부장관 현장중심 감각 탁월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자는 1955년 완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광주서중·광주일고에 진학했으나 부친의 병환으로 가세가 기울고 대학입시를 앞두고 폐결핵을 앓는 등 어려운 10대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해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이던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전남도청 사무관으로 일하다 이후 내무부를 거쳐 1994년 39살의 나이로 강진군수에 부임하고 이듬해 고흥 완도군수를 역임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전남도 경제통상국장으로서는 부도위기를 맞은 삼호중공업 조업정상화를 진두지휘했다.

1997년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으로 재임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 내 전국 최초로 신생아 수당을 도입했다.

2006년 전남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해서는 문화사절단을 이끌고 카리브해 연



안 국가를 순방하는 등 노력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데 일조하는 등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정계입문 후에는 18대 국회 4년과 19대 국회 2년간 농식품위와 농해수위 등에서 활동하면서 농어민의 대변자, 농어촌 지킴이로 활동했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호남민심을 되돌리는데 기여했다. 지난해 대선당시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아 광주·전남 지지율을 80%까지 끌어올려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을 맡았을 때도 특유의 현장중심 감각을 발휘했다. 현장 혁신을 강조하며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했고, 대표적인 갈등과제였던 마하회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는 그의 적극적인 현장소통과 사회적 타협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년 전 수준에 머물던 12만6,000원대 쌀값을 16만8,000원대로 회복시키고, 청탁금지법 가운데 농수산물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우려를 덜었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 등의 성과를 올렸다.

/정근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싸늘이’

### 국회의원·단체장·광역의원 ‘독식’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를 ‘싸늘이’ 했다.

민주당은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을 비롯해 5개 구청장, 20개 광역의원 지역구를 모두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

개표율이 20%를 넘어선 이날 오후 11시 20분 현재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이용섭 민주당 후보가 85%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나경채 정의당 후보가 5.88%, 전덕영

바른미래당 후보가 4.98%, 윤민호 민중당 후보가 4.57%의 득표율로 치열한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

광주 5개 구청장도 민주당이 독식할 태세다.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4개 구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고 동구도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동구와 서구는 현역 구청장이 각각 민주당 평화당과 무소속 후보로 출마, 민주당

후보와 접전이 예상됐지만 민주당 돌풍에 재선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지역구에서 20명을 뽑는 광주시의원 선거에서도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며 사실상 ‘1당 독점’이 유력한 상태다.

59명을 뽑는 기초의원(구의원)도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민중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송갑석 민주당 후보가 80%가 넘는 득표율로 김명진 평화당 후보를 크게 앞서며 당선을 예약했다.

/조기철 기자



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발표로 여야는 상반대 표정을 보였다. (왼쪽)추미애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당직자들이 13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6·13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며 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오른쪽)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린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TV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로 선 보수야권...정계개편 가나

### 최악 참패...한반도 데탕트 흐름 속 진로 고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13일 여당이 완승을 거두고 야당이 일제히 충격적인 ‘패배’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확실시되며 야권이 거센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보수 야당으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걸잡을 수 없는 책임론 속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에 내몰리면서 정치권에선 벌써 야권발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동반한 한반도 평화 드라이브가 집권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자리잡는 상황에서 반복 대결의식을 동원한 이념갈등 구도하에 지지층을 묶어두는 한계가 이번 표심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치노선 재정립을 포괄하는 이합집산을 고려해야 할 처지에 빠져 드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 야권진영으로는 향후 선거에서도 여당을 상대하기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심화한 만큼 ‘보수 대통합론’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영남

일부지역만 사수하는데 그치고 재보선에 도 완패한다든 바른미래당도 존재감을 전혀 보이지 못하면서 어느 한쪽이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잡기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야권의 정계개편은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사퇴의사를 밝힌 데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참패책임을 지고 이르던 14일 사퇴할 것으로 알려져 두 당 모두 일단 내홍을 추스르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직후 어떤 형태로든 ‘보수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야권 정계개편의 불씨가 지펴지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내놓았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한 바른미래당이 ‘제3정당’으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바른미래당이 ‘갈라져가’를 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박우선 공동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출신 호남계 의원들과 유승민 공동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정체성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지방선거 이후 함께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일찌감치 나왔다.

그렇다고 선거에서 전무후무한 성적으로 참패한 한국당이 정계개편을 주도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상황이 복잡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보선까지 참패해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원내 1당 경쟁에서 진작에 떨어진 한국당이 일단 바른미래당에서 일부 이탈하는 의원이 나올 경우 이들을 흡수하려 노력할 것이라 시나리오를 내놓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패한 한국당행을 택하기보다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한국당 내 의원들과 합세해 새로운 세력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화당도 이번 선거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당의 존립이 위협받는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이 이탈해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 동안 인위적 정계개편에 선을 그어온 민주당 역시 원내 1당 사수를 위해선 이같은 흐름이 가시화될 경우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의 여파가 일부 의원들의 이탈수준에 그칠 뿐, 정당의 존립근거를 뒤흔들 수준의 정계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선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연합뉴스

## ■ 화제의 당선자

### ‘86 운동권’ 송갑석, 우여곡절 끝 ‘3전4기’

#### 16·19·20대 총선 잇따라 패배시련 딛고 축배 여성전략공천 파동 끝 공천 80%대 압도적 승리

‘86 운동권 세대’ 출신 송갑석 노무현대담 광주운영위원이 패배에 패배를 거듭한 끝에 첫 축배를 들었다.

송 후보는 13일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80%대 득표율로, 국회 전문 DJ(김대중 전 대통령)맨으로 통하는 민주당화당 김명진 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3전4기다. 송 당선자는 “20년 가까이 정치도전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흥 출신으로 광주 광덕고와 전남대를 졸업한 그는 199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겸 제4기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낸 학생운동권의 실질적 리더였다.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정보기관에 불법연행돼 20일 동안 모진 구타와 함께 혹독한 조사를 받기도 했고, 출소 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까지 했다.

전대협 의장 시절 고 김대중 전 평화민주당 총재를 극비리에 만나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청년지도자로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도 받기도 했다.

대학운동권의 산중인이던 그였지만 정치역정은 가시발걸의 연속이었다. 전대협 3대 의장을 지낸 임종석 현 청

와대 비서실장과 친분이 두텁고, 86 운동권들이 줄줄이 정계에 진출했지만, 유독 당선과는 인연이 없었다.

16대 총선 때 남구에 무소속 출마해 국회 진출을 꾀했지만 실패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 서구갑에 무소속 도전했다가 박해자 당시 민주당합당 후보, 무소속 정용화·조영택 후보 등에 밀려 4위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그리고 4년 뒤, 다시 찾아온 선거에선 우여곡절 끝에 박 후보를 경선에서 누른 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전했으나 ‘국민의당 녹색 돌풍’에 결국 종진인 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에 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선거법의 빛에 걸린 종진 송 의원의 중도 낙마로 2년 만에 찾아온 또 한 번의 기회에 그는 박 전 의원과 운명적인 리턴매치를 벌여야 했고, 중앙당의 전략공천 카드가 결국 패착이 되면서 드라마틱하게 4번째 총선 출전권을 따냈다. 여당 후보로 출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공천까지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중앙당의 오락가락 행태가 속을 태웠다. 중앙당이 후보 공모지역에서 느닷없이 서구갑을 제외하면서 전략공천 설이 나뉘기 시작했고, 의혹이 반발로



번지자 당은 슬그머니 공모지역에 포함시켰다.

한동안 양자 대결로 흐르던 분위기는 그러나 중앙당이 ‘서구갑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후보 선출의 열의를 전략공천위로 이관하면서 다시 반발여론이 들끓처럼 번지고 성명이 잇따르고, 급기야 빚속 촛불집회까지 강행되면서 중앙당은 전략공천 카드를 접고, 경선으로 급선회했다.

그러나 중앙당이 ‘시민여론 50%+ 권리당원 ARS 50%’ 대신 ‘권리당원 100%’라는 짚수 경선 룰을 꺼내 들면서 위기론이 형성됐으나 선남 민심은 당심까지 흔들었고, ‘이러다간 본선거에서 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표심이 송 후보로 쏠리면서 최종적으로 공천권을 쥐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이다.

잇단 낙마과정에서 한국공공데이터센터 소장, 전남과학대 객원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키워 온 그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완성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광주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비전들을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조기철 기자

## 평화당 이윤행, 함평군수 당선 ‘이변’

### 민주당 무난한 승리 예상 뒤엎고 역전 꾸준한 지역관리와 성실성 높은 평가

함평군수 선거에서 민주당화당 이윤행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더불어민주당 김성모 후보를 누르며 당선됐다.

이윤행 후보는 13일 오후 11시 20분 현재 96.09%를 개표한 결과 46.65%를 득표해 당선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모 후보는 38.32%, 무소속 노두근 후보는 15.02%를 얻는 데 그쳤다.

함평군수 선거는 안병호 현 군수가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파문으로

3선 도전을 중도 포기하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에서는 안 군수의 지원을 받아 3월 말 뒤늦게 출마선언을 한 김성모 전 함평군변영회장이 박래욱 전 전남도위원을 1.34%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공천권을 따냈다.

민주당화당에서는 이윤행 전 함평군의회 의장이 나섰고, 노두근 전 강진군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선거 초반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

탕으로 김성모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으나, 꾸준한 지역 표발을 다져온 이윤행 후보가 개표결과 함평군의 새 수장이 됐다.

이윤행 당선인은 소감에서 “통합과 화합의 새로운 함평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희망이 모여 저를 선택해 주셨다”며 “앞으로 군민의 뜻을 받들어 서로 화합하고 잘사는 함평을 건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또 “현재 함평은 위기와 기회를 함께 안고 있다”면서 “군민의 복지와 편익을 가장 우선하면서 각종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명나는 명품 함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